

지역 소식통

부안로컬푸드직매장

설맛이 특별판매전 성료

갑진년 설 명절을 맞아 지난 1일부터 9일까지 9일간 부안군 로컬푸드직매장에서 진행된 설맞이 농축수산물 특별판매전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특별판매전은 1만9,760여명(로컬푸드직매장 4,764, 행복장터 693, 온라인 1만4,303)이 방문 및 주문했으며, 설 선물세트 할인 및 무료 택배 서비스로 소비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사과·배 세트 자체 제작 및 정육 선물세트 구성으로 역대 최고 매출액 약 5.8억 원(온라인 3, 오프라인 2.8)을 달성했다.

고창군, '쫓으면 그만이지' 김주완 기자 초청 강연회

'쫓으면 그만이지'의 저자인 김주완 기자를 초청한 강연회가 오는 17일 오후 3시 책이있는공간(고창군 신탄면 소재)에서 열린다.

책 '쫓으면 그만이지'는 경남 진주에서 50년간 한약방을 운영해 온 김장하 선생의 생애와 철학 등이 생생하게 기록됐다. 특히 그날 '부자'가 아니라 '어른 김장하'로 존경 받을 만한 이유들이 빼곡히 적혀있어 책의 무게를 더한다.

김주완 기자는 주간 남강신문 기자로 시작하여 경남도민일보 편집국장장을 역임하고 전무이사 겸 출판미디어국장을 지냈다.

참이른 김장하 선생을 통해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의미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초청강연회를 주관하는 책이있는공간 박영진 총장(문학평론가)은 "이 시대의 진정한 어른 김장하에게 배우는 실천과 나눔의 시간을 고창군민과 함께 공유하고자 준비했으며 관심 있는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1894년 역사적 현장 속으로

정읍시, 19일 130주년 기념 동학농민혁명 시초 고부봉기 재현 '제폭구민, 보국안민' 농민군 진군행렬·사발통문 작성 선보예

정읍시가 동학농민혁명 제130주년을 맞아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인 고부봉기 민봉기 재현행사를 개최한다.

행사는 19일 오전 9시부터 이평·고부면 일원에서 개최된다. 이날 행사에

서는 1894년 1월 고부군수 조병갑의 폭정을 몰아내기 위해 전봉준 장군과 함께 최초 혁명을 모의했던 예동마을에서부터 말목장터와 감나무까지의 진군행렬을 재현한다.



정읍시가 19일 이평·고부면 일원에서 동학농민혁명 제130주년을 맞아 동학농민혁명 시초인 고부봉기 민봉기 재현행사를 개최한다. (사진=정읍시청 제공)

제폭구민(除暴救民), 보국안민(輔國安民)의 가치로 130년 전 만민이 평등한 새로운 세상을 꿈꿨던 농민군의 열원을 담은 퍼포먼스라고 시는 설명했다. 기념식에서는 정읍시립국악단의 공연과 왕가석 명창의 판소리 공연이 이어진다.

이후 기관·단체장과 동학 관계자, 지역주민 등과 함께 오늘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미래를 살아야 할지를 알아보기 위한 신(新)사발통문 작성 행사가 진행된다.

이외에도 고부면 동학올림센터에서 고부관이 진격 마당극, 진격 퍼포먼스 등을 선보인다. 이학수 시장은 "동학농민혁명은 근현대사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흐름을 바꾼 역사적인 사건"이라며 "그 혁명정신은 이후 3.1운동과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에 이어 촛불시민주의혁명으로까지 이어져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의 동력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읍은 혁명의 발상지이자 성지"라면서 "동학농민혁명기념제, 고부봉기 학술대회, 말목장터 문화광장 조성, 고부관아터 복원, 동학농민혁명 헌법전문 명시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혁명정신의 전국화·세계화 기반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군민 삶 만족도 '최상위'

2023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조사 14개 시군중 2번째로 높아

고창군민들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가 전북도내 14개 시·군 중 최상위권에 들며 행복도시를 실현해 나가고 있다.

14일 고창군과 전북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최근 '2023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조사'가 발표됐다. 사회조사 항목 중 '삶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서 고창군민들은 자신의 삶 만족도에 6.89점(10점 기준)을 줬다.

이는 2022년 고창군 삶 만족도 6.4점에 비해 0.49점 높아진 점수다. 14개 시·군 중에선 진안군(7.24점)에 이은 2번째로 전북도 평균(6.61점) 보다 높았다.

군민이 느끼는 지역생활만족도 역시 6.84점(도 평균 6.4점), 어제의 행복감을 바꾼 역사적인 사건"이라며 "그 혁명정신은 이후 3.1운동과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에 이어 촛불시민주의혁명으로까지 이어져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의 동력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읍은 혁명의 발상지이자 성지"라면서 "동학농민혁명기념제, 고부봉기 학술대회, 말목장터 문화광장 조성, 고부관아터 복원, 동학농민혁명 헌법전문 명시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혁명정신의 전국화·세계화 기반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고창군민의 '삶의 질(100점 기준)'도 경제적인 측면(65.3점/도 평균 61.7점), 건강에 대한 측면(64.1점/도 평균 62.7점), 사회적인 측면(도 평균

66.5점), 정신적인 측면(66.9점) 모두 도 평균치 이상이었다. 이외에도 향후 10년 이후 현 거주지(고창) 거주 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군민 89.9%가 "그렇다"고 응답해 14개 시·군 중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이며 지역에 각별한 애정을 드러냈다.

앞서 민선 8기 심덕섭호는 군정승로를 건을 '군민 모두가 행복한 활력 넘치는 고창'을 슬로건으로 정하고 행복도시 만들기에 힘쓰고 있다.

지역 자긍심을 높이는 '유네스코가 인정한 세계의 보물 7개'를 보유하고 있고, 전북 최초 삼성전자 투자유치 성공을 비롯해 호남권 드론융합지원센터, 터미널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 등을 통해 정주여건 개선에도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군민들이 체감하는 효과 높은 정책으로 더 큰 도약 더 좋은 고창"을 향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자' 책꾸러미 배부

신생아·영유아 출생신고·도서관 방문 시, 초등학교 1학년 첫 배부

정읍시는 올해 생후 0개월부터 초등 1학년 이하의 어린이에게 책 읽는 습관을 길러주기 위해 '북스타트' 책꾸러미를 배부하고 관련 독서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자'는 의미를 갖고 있는 '북스타트'는 기적의 도서관이 주관하고 책읽는사회문화재단이 협력해 운영하는 독서 진흥운동이다.

책꾸러미는 북스타트 가방(에코백)과 성장 연령기에 맞는 그림책 2권, 안내 가이드 북 등으로 구성됐다.

신생아~18개월 책꾸러미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즉시 배부한다. 19개월~36개월 영유아는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고 도서관에 방문하거나,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 택배로도 꾸러미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에게도 책꾸러미를 배부해 어린이들의 독서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영유아 북스타트 후속 프로그램으로 그림책과 함께하는 오감발달 책놀이 프로그램과 자녀 교육

및 그림책 육아에 도움이 되는 부모 교육을 3~11월에 운영한다.

이중 책날개 행사는 학생들이 독서에 흥미를 갖고 책 읽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초등학교 3개교를 방문해 꾸러미 전달과 더불어 그림책 읽어주기, 기념사진 촬영 등을 진행한다.

또한 초등학교 20개교에 학급 단위별로 책놀이 전문 강사를 파견해 책꾸러미 그림책을 활용한 책놀이 활동 등 다채로운 독서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해 아이들에게 책과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을 선물할 계획이다.

송원숙 도서관사업소장은 "기존에 영유아를 대상으로 배부되던 책꾸러미를 올해 처음으로 초등 입학생들까지 배부하는 만큼 보다 많은 아이들이 책과 더 친밀해질 좋은 기회"라며 "책 읽는 습관 형성과 독서의 생활화에 도움이 되는 북스타트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고 했다.

북스타트 책꾸러미 배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정읍기적의도서관에 문의(☎063-539-6452~3)하거나, 도서관 홈페이지(https://lib.jongup.go.kr)를 참고하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귀농인 농업창업자금·주택구입자금 융자 지원

23일까지 신청자 모집

정읍시가 귀농인들의 주거공간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위해 '귀농 농업창업 자금과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한다.

14일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세대 당 농업창업 자금은 최대 3억원, 주택구입 및 신축 자금은 최대 7500만원 한도로 대출금리와 저금리와의 차이를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이다.

대출금리는 변동금리 또는 고정금리(연 1.5%)이며, 상환방식은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방식이다. 대

출금액은 한도 내에서 대상자의 사업 실적과 대출 취급기관의 대상자에 대한 신용 및 담보 평가 등 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된다.

신청 자격은 사업 신청 연도 기준 65세 이하(195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세대주면서 도시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 분야에 종사한 자로,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다 정읍지역으로 전입한 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이다.

또한 귀농 교육 8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재촌 비농업인은 최근 5년 이내 영농경험이 없고, 사업신청일 현재 정읍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된 귀농인으로, 거주기간과 교육 이수 실적을 만족해야 한다. 귀농희망자의 경우 귀농인의 지원자격과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을 전제로 사업신청은 가능하다. 농업 외 타 산업분야에 전업적 직업 또는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되며,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층 면접을 통해 최종 대상자가 확정된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2월 23일까지 하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보건소,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대상자 모집

부안군보건소에서 오는 16일까지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은 작년부터 새로 시작해 큰 호응을 얻은 사업으로 65세 이상 어르신의 허

약 정도 및 건강행태에 따라 블루투스 기반 건강 측정기를 배부하고 담당 건강관리자가 건강관리 앱을 이용해 6개월 간 비대면으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손목에 착용하는 활동량계를 지급하며, 이외에도 건강 평가 및 질환여부에 따라 스마트폰과 연동하여 비대면으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혈압기, 혈당기, 체중계를 사전 기간동안 제공한다.

/부안=김영식 기자

전주매일 PDF 지면보기 서비스

www.jjmaeil.com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